

경로의존성을 통해 본 현재의 문제상황 진단 : 초기 동유럽 체제이행 국가들과 몽골의 RIA 프로그램 비교 분석

Saruul Tovuusuren*

배건이(역)**

〈국문초록〉

이 짧막한 글은 민주화 과정에서 동유럽 국가들의 초기 RIA 정책을 비교해서 몽골의 RIA 이행시 현재 드러나는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탈공산주의에 관한 연구들이 이전만큼 중요성을 갖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구들이 몽골의 현상황을 탐구하는데 있어서 시론적인 설명력을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비교분석은 몽골의 영토적, 문화적, 역사적 고유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동유럽의 탈공산주의 국가의 초기 RIA에 관한 검토는 본 논문의 제1장에서 기술되는 이유들 때문에 특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논문의 주요한 목적은 몽골의 RIA에서 나타나는 퇴행적인 상황의 배경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논문의 제2장은 포괄적인 공행정정책을 토대로 민에 대한 경로의존성을 고려해 보았다. 더 나아가, 본 논문은 선진국과 개도

* 몽골 법제연구원, 정책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국들로부터 얻은 교훈을 분석하고 몽골의 예외적인 퇴행적 맥락에 그것이 갖는 잠재력을 분석한다.

※ 주제어 : 비교연구, 탈공산주의 체제전환 국가, 규제영향평가, 공공정책, 법개혁

I. 들어가는 말

- II. 이전의 경험들과 현상황의 비교
 - III. RIA 프로그램 전략의 한 요인으로서 경로의존성
 - IV. 결 론
-

I .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개발도상국들이 자신들의 규제프로그램을 개혁하면서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몽골의 규제 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 이하 RIA)를 분석하고자 한다.

2000년 이래로, 개발도상국들의 RIA의 강점과 약점은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연구해 왔고, 연구보고서와 실태조사서로 정리해 왔다.¹⁾ RIA가 몽골에서 발전의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2001년 이래로 적용되어왔다는 것은 다소간 놀라운 일이다. RIA 개념은 “의회(the Great State Khural) 법률안 및 여타 결정의 심사를 위한 개발 및 제출 절차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후

1) Lee Norman 2002, Kirkpatrick Colin and Parker David 2003 참조.

RIA 지침이 도입되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사전적, 사후적, 비용-편의 분석 기준을 담고 있다. RIA 지침의 발간, 적용 이후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법령의 형성에 있어서 지침의 적용은 양적, 질적으로 사실상 전무 했다고 할 수 있다. 2001년 법률 도입 이후 RIA 문건이 첨부된 것은 500개 가 넘는 법령들 중 채 10건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더딘 발전 속도는, 언뜻 보기에도, 조악한 지침 또는 집행당사자들의 능력 부족 때문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비교연구들은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II. 이전의 경험들과 현상황의 비교

2000년대 초반, RIA 정책은 OECD 국가들에서 폭넓게 적용되었고, 몇몇 개도국들에도 도입되었다. 몽골과 동유럽 내 탈공산주의 체제전환 국가들도 이러한 정책을 이행하기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2000년대 초반 동유럽이 직면한 RIA의 도전적인 쟁점들을 되돌아보면, 현재 몽골의 상황과 유사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몽골의 RIA는 “의회 (the Great State Khural)²⁾ 법률안 및 여타 결정의 심사를 위한 개발 및 제출 절차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던 2001년 이후로 정체된 상태로 남아있었던 반면, 동유럽 국가들은 발전을 거듭했다.

그 이유를 해명하기 위해서, 우선 주요한 국제 RIA 전문가인 Scott Jacobs가 규정한 일반적인 RIA 분석 경향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는 선진국에서 사용되는 RIA 이행 전략에서 두 가지 주요한 흐름을 관찰했다. 첫째, 통합적 분석틀로서 RIA를 현대 공공정책의 복잡한 과업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둘째, 특히 비즈니스에 대한 행정적 부담에 대한 평가로서 RIA를 단편적, 부분적 과업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³⁾

2) 몽골의 의회(the State Ikh Hural)는 76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단원제 의회이다. 구성원들은 76개 선거구에서 직접투표로 선출된다.

3) Jacobs Scott, 2006. pp. 3-4.

Jacobs는 이러한 두 가지 경향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선진국들의 정책 형성에 RIA의 미래에 위험과 기회를 제공한다고 결론짓는다.⁴⁾

RIA에서 선택된 영향들을 강조하는 것이 사리에 맞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적 방법들은 연성 편익-비용 분석과 같은 조금 더 넓고 통합적인 RIA 방법들 속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그럴 경우에, 규제자들은 목표와 영향간 유익한 교환관계를 확인하고 형성할 수 있다.

좀 더 발전된 법적 토대와 상호작용적인 공공정책의 존재에 의해 예측될 수 있는 바, 이러한 두 가지 경향이 미국,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같은 국가들에서 효과적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초기 탈공산주의 사회는 이와 달랐다. 통합적인 동시에 단편적인 RIA 경향은 개도국들에서는 거의 관찰할 수 없다. 무엇보다 RIA 초기 국면에 있는 경우에 그러하다.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증명된 바와 같이, 두 번째 경향이 2000년대 초기 개도국들에서 채택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예컨대, 맨체스터 대학의 Kolin Kirkpatrick은 단편적 경향에 기초하여 탈공산주의 국가들에서 RIA 발전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자본시장에서 워싱턴 컨센서스의 실패한 정책 때문에, 재정규제개혁에 대한 RIA 적용의 필요성이 이러한 국가들에서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⁵⁾ 다시 말해서, 체제전환사회에서 RIA 이행은 경제적인 편익 및 비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동유럽 체제전환국가들의 초기단계에서 RIA 이행 경험을 검토해보면, Kirkpatrick의 제안이 유지될 수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재정적 규제 개혁이 체제전환 국가들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전환기에 우선순위를 갖는 목표였다. 그러나, 돌이켜보건대, 그러한 핵심적 원칙에 기초한 RIA 적용으로는 지속가능한 RIA 정책 발전에 도달할 수 없다. 예컨대, 2012년 출간된 Staronová Katarína 외

4) *ibid.*

5) Kirkpatrick Colin, 2001, p. 5.

비교연구는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에 의해 취해진 적용 영역, 즉, 기업에 대한 행정적 부담의 경우를 분석한다. Staronová에 따르면, 이러한 영역들에서 실험은 제한된 능력과 이익을 가지고, 여전히 RIA를 추가적인 부담으로 여기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RIA 잠재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했다.⁶⁾

앞서 언급한 Jacobs의 관찰을 다시 검토해보면, 우리는 이러한 국가들에서 실행되었던 RIA 실험영역이 선진국들에서 추구되었던 영역과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제는 특수한 실험영역 그 자체가 아니다. 어떠한 단일한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탈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성공을 보장하지 않았다. 실천적인 의미에서, 연구보고서들의 추천을 뛰어넘어 명확한 방법론의 부재, 부적절한 제도적 장치 등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마도 더 적절할 것이다.

III. RIA 프로그램 전략의 한 요인으로서 경로의존성

전환정책에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들에 주목해보면,⁷⁾ 이전에 공산주의였던 역사적 경로가 동유럽 국가들에서 RIA를 추구하는데 공통적인 문제상황을 형성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RIA 프로그램이 동유럽 탈공산주의 국가들에 도입되었을 때, RIA 적용 및 방법론은 서유럽 국가들의 그것에 비해 현저히 뒤처져 있었다. 이것은 지정학적 위치에 기인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체제전환에 직면한 고유의 법적, 공행정적 시스템에 기인한 것이었다. 더불어 체제전환의 연쇄반응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혔다. 탈공산주의 국가들이 영미 시스템 국가들에서 유래한 신공공관리개혁에 의해 영향받아 정부개혁을 이행하기 시작했을 때, 상황은 좀 더 극적인 것이 되었다.

6) Staronová, Jan Pavel & Katarina Krapež. 2007, p. 280.

7) compare: Wolfgang Merkel 2010, Offe Claus 1997, Willfried Spohn 2002.

신공공관리개혁은, Francesca Bignami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에 비해서 서유럽에서 덜 광범위한 것이었다.⁸⁾ 이것은, 그의 설명에 따르면, 로마-게르만 법체계에 의해 강력하게 영향을 받은 공무 전통에 기인한다. Bignami가 주목한 바와 같이, 독일의 공행정은 엄격하게 법치국가모델에 상응한다.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 교육을 받고 그들의 기능은 형식적 절차로서 법에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커먼로 시스템이 지배하는 미국 또는 영국 같은 국가들에서 정책형성을 평가하는 공무원의 적극적 역할은 신공공관리개혁 및 RIA 정책 시행의 토대를 형성한다. 신공공관리 과업은 통치에서 강제적 개혁으로서 이행되었다. 행정행위 및 행정 거버넌스가 파생되어 나오는 규제영향평가적 규칙은 정책을 평가하는 공무원의 권한으로부터 파생된다.

따라서, 상이한 법체계 안에서 공행정에서 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관념들은 명백히 개혁에 대한 도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결과적으로 동유럽 국가들에서 RIA 프로그램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위 주장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은 최상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공공정책개혁, RIA가 상호보완적이고 정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성공적이었던 동유럽 RIA 프로그램에서 관찰할 수 있다.

대부분 탈공산주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경험은 그들이 규제영향평가를 십년 동안 적용해왔다는 것이다. 2014년에 공간된 OECD 보고서를 검토해보면, 몇몇 탈공산주의 국가들은 RIA 개혁을 비교적 최근에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체코(2011), 에스토니아(2012), 라트비아(2013) 및 폴란드(2011)가 방법론을 개정하고 자신들의 RIA 기구를 재구성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더 많은 권위를 갖는 중앙기구의 설립이 성공적인 규제영향평가 개혁에서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러한 개혁은 현대 공공정책의 복잡성을 다루기 위해서 규제영향평가가 단일하거나 단편적인 평

8) Bignami Francesca, 2011, p. 26.

가로부터 좀 더 통합적인 프레임워크로 진화하는 것에 조력할 수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그러한 진화가 발생하고 있는 탈공산주의 국가들이 동시에 비교적 짧은 기간안에 선진국들과 함께 주류적 흐름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OECD, WTO, EC 같은 국제 기구들이 그들의 법개혁과 함께 공행정관리의 현대화를 지원했고, 결과적으로 RIA 관련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그러한 외부적 요인이 여기서 고려하는 국가들 중 몇몇에는 하찮은 영향을 미쳤다. 체코 또는 폴란드와 달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같은 몇몇 탈공산주의 아직 OECD에 의해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런가?

오늘날, 대부분의 관찰자들은 공산주의 이전 시기와 관련하여 동독, 헝가리, 폴란드, 발틱국가들 및 슬로바키아가 불가리아 또는 몽골보다 더 현대화되었다고 본다. 앞에 언급한 국가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그들의 역사적 경로 및 공산주의 이전 시기에 민주적 거버넌스의 경험을 가졌다는 것이다. Huntington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민주화 물결에 있어서 그들의 참여의 빈도와 관련하여 탈공산주의 국가들간 경험은 다양하다.⁹⁾ 예컨대, 민주주의의 이행은 체코스로바키아와 헝가리에서 모두 세 번의 흐름에 걸쳐 시도되었다. 폴란드와 발틱국가들에서는 두 번의 흐름이 있었다. 그러한 상대적으로 산업화된 국가들에 비하여, 몽골, 불가리아, 루마니아와 같은 덜 현대적인 (전통적인, 농업국가적인) 국가들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제3의 물결 동안에만 처음 시도되었다. 민주주의 공고화와 공행정정책이 상호연관되어 있다고 여긴다면, 몇 차례 민주화 흐름에 참여했던 국가들이 자신들의 공행정개혁에서 좀 더 성공적이라고 주장해도 좋을 것 같다. 아래 표는 통합적 공행정개혁이 목표인 RIA에서 민주화에의 참여가 긍정적인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개념적인 프레임워크를 보여준다.

9) cited in Merkel, 2010, p. 130.

[표] 탈공산주의 국가들에서 민주화 경험과 RIA 상호연관성

이전 공산주의 국가들	규제영향평가 수행도 (1~10점) ¹⁰⁾	민주적 흐름에 참여도 (1828~2004) ¹¹⁾
체코공화국	8	3
에스토니아	8	2
라트비아	8	2
폴란드	8	2
리투아니아	7	2
루마니아	6	1
슬로바키아	5	1
불가리아	5	1

위 표로부터 RIA 수행도 점수가 민주화에의 참여와 상호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명백해진다. 환언하면, RIA 수행도 점수가 높을수록 민주적 참여에의 경험이 더 강화된다. 민주적 거버넌스와 관련된 경험이 동유럽 국가들에서 RIA가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탐구하는 것은 좀 더 엄격한 분석을 요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제한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인식은 시론적인 설명력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탈공산주의 동유럽 국가들간 차이점은 RIA 프로그램 디자인 그 자체의 산물이라기보다 역사적 상황의 산물인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히려 RIA 수행도에 공헌하는 체제전환 이전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10) SGI. 2014 : 10~9점은 복잡한 영향 경로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모든 새로운 규정들 및 현존하는 규정들에 적용 된다. RIA 방법론은 보편적인 최소한의 기준들에 의해 지도받는다. 8~6점은 대부분의 새로운 규정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적용된다. RIA 방법론은 보편적인 최소한의 기준들에 의해 지도받는다. 5~3점은 몇몇 경우들에만 적용된다. 보편적인 최소한의 기준들을 보장하는 보편적인 RIA 방법론이 없다. 2~1점은 RIA가 적용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11) Merkel 2010, p. 130.

마찬가지로, 우리가 몽골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힌다면, 우리는 탈공산주의 동유럽 국가들 중 적은 민주화로의 이행을 경험했던 불가리아와 대단히 유사한 상황을 발견하게 된다. 즉, 공산주의이전 시기 낮은 현대화, 제3의 물결에서 전무한 민주화에의 참여 경험, 더딘 민주화의 공고화 및 부적절한 법적 개혁이 효과적이지 못한 RIA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불가리아와 유사점들은 역사적 경로의존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RIA 이행과정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양국가 모두 개도국들에서 RIA 과정에 관한 2002년 Radaelli 아래 결론에 해당한다.¹²⁾

[...] 정책과정이 행정적 실행가능성의 장벽, 정당성의 흠결, 공무원과 정치인들에 의해 잘못 수용된 수단의 확산과 충돌하는 영향평가체계로 이어진다.

몽골의 행정개혁을 관찰해보면, 탈집중화(지방정부에 권한부여) 및 신공공관리개혁을 포함하여 이전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급진적인 변화가 쉽사리 관찰된다. 그러나, 공행정 개혁을 향한 이러한 두 가지 주요한 시도들은 부적절한 이론적 배경 때문에, 또 그 “획일적인” 해법을 적용하려는 경향 때문에 비난을 받아왔다. Ganbat Damba 박사가 (정치경제아카데미) 간결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닌 개혁은 지지를 얻거나 공무원과 시민들의 의심, 저항, 무관심을 극복할 수 없다.¹³⁾

그러한 법과 행정에 있어서 모호한 개혁 노력은 RIA 실천에 있어서 아마도 몽골을 다른 탈공산주의 국가들보다 십년 뒤처지게 했다. 그러한 자체가 몽골로 하여금 더 나은 RIA 전략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다른 국가들의 지나온 경험을 학습하도록 했을 수 있다. 동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돌

12) Radaelli, C.M. 2002.

13) Ganbat Damba 2006.

이켜보건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RIA 적용 전략을 채택하는 것은 (Jacobs에 따르면¹⁴⁾)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전략은 체계적으로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체제전환국가의 사회적, 정치적 복잡성은 효과적인 RIA 프로그램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이중의 장애로 작용한다.

선진국들로부터 개도국들이 배운 교훈은 통합적이면서 단편적인 것의 동시적 적용이 성공적인 RIA에 있어서 핵심요인이라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중앙집중적 RIA 기구를 설치하는 경향이 선진국들과 그들의 10년 간 경험으로부터 배운 지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RIA가 10년 동안 정체되어있는 몽골에서 무엇이 더 나은 RIA 전략인가? 더 통합적인 경향을 반영하여 개념을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들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 대단히 실용적일 것이다. 이것은 공공관리개혁이 성공적인 RIA 정책 이행을 결정짓는다는 널리 퍼진 주장과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RIA 과정을 수정하는 개혁을 기다리는 대신에 정치적 불확실성에 의해 둘러싸인 쟁점들을 해결하고 이행기구의 제도적 권위를 극대화시키는 RIA 프로그램을 몽골에서 디자인해야 한다. 그러한 독립적이고 중앙집중적인 RIA 기구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자각과 이해를 증진 해야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시민들, 중간 공무원들 같은 다른 이해당사자들부터 압력하에서 입법적, 행정적 개혁에 관한 고위 의사결정자들이 RIA 발전을 지지할 의무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해법이 비록 추상적이고 가정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몽골에서 명백한 잠재력을 갖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14) Jacobs Scott, 2006, p. 44.

IV. 결 론

본 논문은 몽골의 RIA 프로그램 발전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소개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몽골의 현황과 동유럽국가들의 초기 탈공산주의 체제전환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RIA 프로그램의 정체현상과 역사적 경로의존성간 인과관계의 분석을 요청한다. 몽골이라는 판도라의 상자 안에서 발생했던 부정적인 결과들의 효과를 해결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안들에 이르는 길로 명확하게 인도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탈공산주의 이후 국가들에서 RIA 적용은 다양한 경험의 연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문제상황을 공유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결론은 RIA가, 잘만 이행된다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개도국에서 개혁의 성공을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 같다. 이것은 동유럽 국가들의 최근의 개혁경험에 의해도 뒷받침된다.

몽골의 경우, RIA 프로그램 전략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간 조율을 촉진하는 제도화의 지점부터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RIA가 공공행정개혁으로부터 성장한 현상으로 보이는 선진국들에서 자연스러운 발전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몽골의 퇴행적 상황에 교훈이 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필자는 지속가능한 수준의 RIA 질에 도달하기 위해서, 몽골 정부가 정부 조직안에 능력과 인센티브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명확한 전략을 필요로 한다고 결론짓는다. 실제로, RIA를 위한 중앙집중기구가 필수적이다. 그러한 기구가 핵심 이해당사자들간의 자각과 조력을 증진하면서 영향을 받은 집단들에 대한 자문과 참여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Fancesca Binami, (2011), *From Expert Administration to Accountability Network: A New Paradigm for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The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Inc.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Fall, 2011,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59 Am. J. Comp. L. 859
- Ganbat Damba, (2006), Administrative Reform in Mongolia, Past and Present. Available at https://view.officeapps.live.com/op/view.aspx?src=http%3A%2F%2Fbk21gspa.snu.ac.kr%2Fdatafile%2Fdownfile%2FGanbatDamba_2.doc
- Huntington, Samuel P., (1993).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Londo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Jacobs Scott, (2006), *Current Trends in Regulatory Impact Analysis: The Challenges of Mainstreaming RIA into Policy-making*, Available at http://policyresearch.gc.ca/page.asp?pagenm=pub_wp/
- Kirkpatrick Colin, (2001) University of Manchester. *Regulatory in Developing Countries: Research Issues*. Paper No.5. Available at <http://idpm.man.ac.uk/crc/>
- Kirkpatrick Colin; Parker David, (2003),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Developing Its Potential for Use in Developing Countries*. Centre on Regulation and Competition Institute for Development Policy and Management University of Manchester UK and Aston Business School Aston University Birmingham UK. Available at http://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3512176_Regulatory_Impact_Assessment_Developing_Its_Potential_for_Use_in_Developing_Countries.

〈번역문〉 경로의존성을 통해 본 혐재의 문제상황 진단 : 초기 동유럽 체제이행 국가들과 몽골의 RIA 프로그램 비교 분석

- Lee Norman. (2002) *Developing and Applying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Methodologies in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Manchester, Centre on Regulation and Competition. Working Paper Series. Available at <http://idpm.man.ac.uk/crc/>
- Merkel, Wolfgang, (2010), *Systemtransformation: Eine Einführung in die Theorie und Empirie der Transformationsforschung*.(2.Auflage).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 Offe, Claus, (1997), *Varieties of Transition: The East European and East German Experience*. Cambridge & Massachusetts: MIT Press.
- Spohn, Willfried, (2002), *Transformation Process, Modernisation Patterns and Collective Identities: Democratization, Nationalism, and Religion in Postcommunist Germany, Poland, and Russia*, In Frank Bönker/ Müller Klaus/ Pickel Andreas (Eds.). *Postcommunist Transformation and the Social Sciences: Cross-Disciplinary Approaches*. Oxfor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Staroňová Katarína; Pavel Jan; Kapež Katarina, (2007), *Piloting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zech Republic, Slovakia and Slovenia, Impact Assessment and Project Appraisal*, Available at: <http://dx.doi.org/10.3152/146155107X246314>
- SGI: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2014), *Evidence-based Instruments Report /RIA application, Quality of RIA Process, Sustainability*. Bertelsmann Stiftung.
- Radaelli, C.M. (2002) “The Politics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the OECD Countries: Best Practice and Lesson-Drawing”, mimeo, Bradford: University of Bradford.